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김정은의 신년사 및 현지지도

신년사 - 김정은(로동신문 2017.01.01.), 농림축산식품업 분야 발췌

○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에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목표가 수행되었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을 확립하고 농업 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수 있는 다수확 품종들을 육종해낸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내놓았습니다. 성공의 원천은 자강력입니다.

○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갖추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생산 확대와 경영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 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 2017년에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 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 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적 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 생활 향상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농업 부문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 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실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량 종자와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 면적을 늘리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 기지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과일과 버섯, 남새 생산을 늘려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각 도에서 현대적인 양묘장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며 강하천 관리와 도로 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내각과 경제 지도기관들이 인민 경제 전반을 상승 궤도에 올려세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략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의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2017.01.12.)

○ 김정은은 북한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해당 부문과 공장, 연관 단위의 일꾼,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은 연건축 면적이 1만 6,130여㎡이며 연간 2,000여 톤의 김치, 2,000여 톤의 장절임, 200여 톤의 버섯 가공품을 생산하는 류경김치공장의 개선 공사를 끝냈음.

○ 김치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 조직과 경영 활동, 품질 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음.

- 생산 현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고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 공정과 복도를 격폐시키고 발효실, 숙성실, 포장실 등의 공정을 하나로 잇닿아 배치하였으며 김치종합분석기 등 첨단 수준의 분석 설비를 갖춘 실험분석실도 만들었음.

- 생산 제품에는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콩나물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무우장절임, 버섯장절임 등이 있음.

○ 김정은은 류경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김정은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 현지지도(로동신문 2017.01.15.)

○ 김정은은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였음.

○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는 원료 준비, 혼합, 숙성, 주입 등 모든 생산 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 흐름선화하였고 통합생산체계도 구축해놓았음. 용기보장공정도 잘 만들었으며 젓갈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생산 현장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놓고 수용 능력이 큰 갱도식 저장고가 있음.

○ 금산포수산사업소에는 큰 배들을 수십 척 현측계류할 수 있는 방파제 부두와 호안, 하륙장, 상가대, 냉동 가공장은 물론 사무청사, 문화회관, 어로공 합숙소, 창고 등 수산물 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음.

- 방파제 부두 뒤편에 여러 동의 온실들이 건설되어 있으며, 자연에너지발전소가 있음.

그림 1 금산포수산사업소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7.01.15.

◆ 과학영농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열어가는 수림화의 지름길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연구원에서 (로동신문 2017.01.24.)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연구원 과학자들은 첨단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묘목온실을 만들었으며, 온실작업의 자동화, 기계화 뿐만 아니라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음.

○ 나무 심기에서의 사름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 잎표피조직의 물기증발억제기능이 약한 창성이깔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농도의 영양액으로 뿌리를 처리하였고 가지치기와 순치기를 진행하였음. 후민산염과 진흙물을 해당한 비율로 섞어 이용하면 나무모 뿌리의 활성을 1.5~2배 정도 더 높여서 사름률을 높였음.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017년 농업 부문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자(로동신문 2017.01.31.)

○ 농업 부문의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대로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함.

- 지금 우리 당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담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음. 특히 2016년에 농업 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수 있는 다수확 품종들을 육종해내고 이상 고온 속에서도 안악, 숙천, 곽산군을 비롯한 벌방은 물론 성천, 안변, 금강군과 같은 중간, 산간지대에서도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한 협동농장들이 생겼음.

○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 신념으로 농사를 진행해야 함. 누구나, 어디서나 다 과학농사를 하여야 함.

- 모든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은 과학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자기 도, 자기 시, 군, 자기 농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량 종자와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나가야 함.

-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알곡 생산 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하여야 함.
- 협동농장에서는 새로운 영농 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행해 나가야 함.
- 모든 협동벌마다에서 과학농사의 보급되기 위해서는 리당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농업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실속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야 함.

○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의 과학농사열의를 올려주기 위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함.

-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농촌들에 전력, 비료, 연유를 계획대로 제기일에 무조건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인민 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농업지도기관들이 농사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로동신문 사설 – 승리의 신심드높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자 (로동신문 2017.01.04.)

○ 신년사에서는 나라의 경제 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한 목표들을 제시하였음.

-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 부문의 문제,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의 문제, 기계공업과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국토관리사업 문제를 비롯하여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가 명시되어 있음.

○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사대와 외세의존, 수입병을 없애야 함.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자력자강의 힘으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 당, 국가, 경제기관, 무력부문 일꾼련석회의 진행(로동신문 2017.01.09.)

○ 경공업, 농업, 양정, 수산부문회의에서는 인민 소비품과 알곡, 물고기, 축산물, 과일 생산을 늘리고 양곡수매사업을 개선하여 2017년 인민 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자고 강조되었음.

○ 농업 부문에서는 현실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량 종자와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 면적을 늘리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2017년 알곡 목표를 달성하자고 강조되었음.

- 세포지구 축산 기지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집짐승 종자와 사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과일과 버섯, 남새 생산을 늘려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였음.

주체적농업발전의 휘황한 설계도따라(로동신문 2017.02.06.)

○ 인민군대는 북한의 기후풍토 조건에 맞고 수확고가 많은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밭벼를 육종하였음.

- 함남, 평북, 황남을 비롯한 여러 도에서는 종자를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현대적 종자가공공장이 훌륭히 건설되었고 종자피복제생산기지들이 생겨나 종자생산의 공업화와 질적 제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전국적으로 다수확 품종 배치체계가 세워졌음.

- 북부고산지대로부터 서해 벌방, 중간, 산간지대 농촌에서는 작물과 품종 배치를 잘하기 위해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으로 과학농사를 실천하였음. 2016년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덕성, 곽산군 렴호, 길주군 봉암협동농장들과 청단군 심평, 숙천군 광천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농촌에서는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 조건에 맞게 다수확 우량 품종을 배치하고 과학적으로 재배하여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였음.

- 전국 농촌에서는 질소비료에 의존하던 현상이 없어졌음. 염주, 동림, 신계, 평산, 안변, 명천, 온성, 금야군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린회토, 비석, 질석, 후민산염, 해염토, 풍화탄 등을 이용한 대용 비료 생산이 활발히 벌어졌음.
-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 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도입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 단위가 늘어났음.

○ 함경북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농촌들에서는 기상관측기지들이 생겨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 관리방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논벼농사는 이른큰모, 원그루큰모, 영양알모 등 여러 앞선 벼모기르기 방법의 도입 면적이 종전에 비해 늘어나 전국적으로 수많은 종자와 모판자재들이 절약되면서도 튼튼한 모를 길러 낼수 있게 되었음.

- 이전에 비해 두벌농사 면적이 수만 정보나 늘어난 것에 맞추어 밀, 보리농사에서는 점파재배, 이식재배, 단지모재배기술 등의 방법이 도입되었음. 감자 농사에서는 긴싹모재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진행되었음.
- 이밖에도 농업 기술 보급사업, 협동농장에 과학기술보급거점 건설이 진행되고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가 확립되어 과학농사지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농업 부문은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전방(로동신문 2017.03.05.)

○ 2017년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며 농업 생산에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함.

○ 농업 생산을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여러 방침을 제시하였음.

- 종자혁명방침과 감자 농사혁명방침,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 등임.

○ 당의 의도대로 농사를 잘 지어 알곡, 고기, 남새, 과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업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생산자 대중을 더욱 분발시켜 경제 강국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칠 수 있음.

○ 농작물의 비배 관리에 필요한 질소,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비료를 해결하자고 하여도 화학공업 부문에서 설비에 만부하를 걸어 비료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하며 농촌에 다용도화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주자고 하여도 기계공업의 발전에 큰 주력하여야 함.

○ 농업 부문에 필요한 양수동력용전력보장문제도 마찬가지임. 결국 인민 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음.

○ 농업 발전은 인민 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침. 경공업의 발전에 미치는 농업의 영향만 놓고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음.

- 농업 생산물은 경공업공장의 생산 활동에서 필수적인 원료임.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당과류제품들, 고기, 알, 젖, 과일가공품들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가공제품들, 비단천과 초물제품 등 수많은 경공업제품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자면 농업 생산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함.
- 즉 농업 부문은 인민 소비품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선, 온 나라가 떨쳐나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음.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2017.02.07.)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가 2017년 2월 6일 평야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인민군군인들은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선군시대의 본보기 양묘장으로 꾸렸으며,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했고 국가과학원에서는 강원도양묘장 설비를 제작하였음.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은 마천령굴공사와 황해남도물길 1단계 공사, 흥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이 완공되고 도로, 다리의 건설 및 보수, 강하천 정리 등이 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음. 일꾼들은 2016년 국토관리사업에서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남도, 평성시, 운산군을 비롯한 여러 도, 시, 군들에서 부문별, 지표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말하였음.

2 농림축산업

◆ 농업

과학적인 품종 배치 –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1.05.)

○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이 농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7년 농장에서는 거의 모든 논에 다수확 품종인 늦종의 논벼 종자를 재배하였음. 모자라는 생육적산온도는 모판 단계에서 보충해주고 비배 관리도 진행하였음.

○ 그러나 9월 초에 우박이 오고 기온은 평년보다 내려가서 포전에는 가을걷이가 끝나서도 물이 차있었고, 이것은 이삭 여물기에 지장을 주어 천알 무게가 예상했던 것보다 2그램 정도 줄어들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일별, 월별대기온도를 파악하여 각 논벼 품5종들의 생물학적 특성도 농장의 토양조건, 기후적산온도와 서로 대비 맞춰나갔음.
- 일꾼은 아지치기 능력이 강하면서도 여물기가 잘되는 중간종을 주품종으로 하고 여기에 올종과 늦종의 논벼 품종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품종 배치를 진행하였음.

주타격전방인 농업 부문에 거름을 집중 수송(로동신문 2017.01.06.)

〈황해남도에서〉

○ 황해남도에서는 수만 톤의 도시 거름을 800여대의 화물차와 트랙터, 600여대의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 수단들이 동원되어 사회주의농촌에 실어 보냈음. 도당위원회책임일꾼은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신원군 신창협동농장과 해주시, 청단군, 배천군의 농장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벌이고 있음.

〈량강도에서〉

○ 량강도의 일꾼과 당원과 근로자들이 감자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 혜산시에서 거름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삼지연군을 향하여 출발하였음.

- 삼지연군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눈발구를 비롯한 합리적인 운반 수단을 이용하여 수백 정보의 감자 포전에 대한 흙깔이를 진행하고 거름 생산과 실어내기를 진행하고 있음.

〈평안북도에서〉

○ 평안북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 집중하고 있음.

- 신의주시안의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들, 본부동, 민포동, 채하동을 비롯한 수십 개 동의 주민들도 많은 도시 거름을 생산하여 각종 운반 수단에 싣고 시안의 협동농장에 지원해 주었음.
- 룡천군, 염주군, 정주시, 구성시, 향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도 많은 양의 도시 거름을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에 실어다주었음.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이 타오른다(로동신문 2017.01.07.)

○ 황해남도 안악군, 평안북도 룡천군을 비롯한 서해 벌방의 규모가 큰 군들, 함주군 등 동해 지구의 다수확군의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과학적인 유기질 비료 생산열풍〉

○ 다수확군들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흙보산 비료 원료 확보, 각종 대용 비료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안악, 재령, 신천, 연안, 배천군의 농업 근로자는 흙보산 비료 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배천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유기질 비료 생산에 노력하고 있음. 함주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모판 부식토 확보를 계획보다 2배 이상 수행하고 있음.

〈증산의 기본열쇠는 지력제고〉

○ 룡천, 염주, 운전군에서 매일 거름 실어내기를 각각 수천 톤씩 진행하고 있음. 평안남도 증산군, 숙천군, 평원군에서는 흙깔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앞선 재배법 도입준비에 박차를 - 길주군에서(로동신문 2017.01.07.)

○ 길주군안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은 많은 논 면적에 이른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를 받아들일 목표를 세우고 준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2016년 군안의 여러 농장에서 이른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음. 3~4월의 벼 모판 온도 보장을 중시하면서 어린모 때 필요한 영양 조건을 보장하고 이른큰모 기르기와 모내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였음. 그 결과 알곡을 정보 당 1~1. 5톤을 증수하였으며 일부 포전에서는 10톤 이상이나 수확하였음.

- 모든 협동농장에서 기술전습회를 진행하여 농업 근로자들에게 기술지식을 학습시켰음.

남새 생산을 늘여 덕을 볼수 있게 – 각지 온실 남새 생산기지들에서(로동신문 2017.01.09.)

○ 과학적인 재배 계단 조직은 온실 남새 생산을 늘릴 때 매우 중요함. 사동구역 장천남새 전문협동농장 일꾼은 온실 형태별 온도 변화 자료에 기초하여 작물 배치를 계단식으로 하고 있음.

- 농장에는 수많은 궁륭식 연동 온실과 토벽식 박막 온실이 있음. 온도 보장 조건이 유리한 토벽식 박막 온실에서는 재배 계단을 6단계로 정하고 시기별에 따르는 작물 배치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였음.

- 시금치-쑥갓-배추-오이-토마토-오이 순서로 재배 조직을 입체적으로 짜서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를 정하여 정보 당 300톤 이상의 수확고를 담보하였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남새온실작업반과 숙천군 남새온실농장의 경우, 온실 호동의 기본 생산 면적뿐만 아니라 공간과 뒤벽, 다님길 등을 이용하여 각종 남새들을 입체적으로 재배하였고 생산량을 늘렸음.

종자 정선기 – 강서구역 학천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1.09.)

○ 강서구역 학천농장에서는 종자 정선기를 만들었으며 풍압 장치가 주목받고 있음.

- 기존의 종전 정선기는 진동 장치와 연결된 흔들이채를 사용하여 농작물 종자를 선별하고 있음. 하지만 이 정선기에서는 공기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종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이는 종자의 여물고 실한 정도에 따라 질량이 다른 점을 이용한 것임.
- 흡입관의 면적을 조절하여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들의 종자를 종류에 관계 없이 선별할 수 있음.

다수확운동에서 이룩된 성과 – 2016년 논벼농사에서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한 영광군 기상협동농장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1.13.)

○ 영광군 기상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은 농업의 과학기술 영농 방법을 도입하였고 2016년에는 종전보다 정보 당 약 2톤의 논벼를 증수하였음.

- 영농 공정 전반을 다수확 재배의 원리에 맞게 혁신하였음. 유기질 비료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지력을 높였으며, 서해지구 농촌에서 재배하는 중간늦종의 다수확논벼 품종들을 많이 도입하였음. 이때 씨 뿌리기와 모내기 날짜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모를 튼튼하게 길러 모판 단계에서 모자랄 수 있는 생육적산온도를 보충하였음.

○ 소식재배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농장 일꾼은 모래가 많은 토양의 특성에 맞게 이랑식소식재배법을 도입하였음.

우량 품종 배치에서 찾은 풍년열쇠 – 문덕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7.01.13.)

○ 문덕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주품종 선택과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심화하였고 알곡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육적산온도를 타산하여 품종을 선택하였음.

- 우량 종자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앞선 영농 방법을 도입하여 종자를 절약하였음. 큰모를 더 많이 받아들여 포기당 대수를 한두 대로 하는 재배 면적을 늘렸음.
- 또한 일꾼은 종자 확보에 주력하였고 발효 퇴비 생산에 주력하였음.

알곡 증수를 담보하는 과학농사작전 – 동림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1.15.)

○ 동림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은 과학농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의 논벼 정보 당 수확량은 2015년보다 평균 수백 kg 더 생산하였음.

○ 2016년 군에서 식물성장촉진제 《증산2》호를 도입하여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농사를 지었음.

- 룡산, 고군영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군안의 농장에 내려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은 포

전의 특성과 논벼의 생육 상태를 보고 식물성장촉진제를 분무하도록 기술지도를 하였음. 그 결과 논벼 천알 무게가 예전에 비해 무거워졌음. 논벼의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비료를 주었음.

○ 군에서는 2016년 농사 경험에 기초하여 2017년 농사에서는 모기르기 단계부터 식물성장촉진제 《증산2》호를 이용하며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최고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현장 기술지도 – 사리원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1.18.)

○ 사리원시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포전에서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현장 기술지도가 진행되고 있음. 2016년에 모든 농장에서는 큰모 재배법 도입이 시범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큰모 재배법이 시의 전체 논 면적에 도입될 예정임.

- 큰모 재배법 도입에서 중시한 것은 모든 단위에서 생산하는 모판 밑거름의 질을 보장시키는 것이었고, 부침땅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집중하였음. 또한 효능 높은 미생물 비료를 적극 생산·이용하였음.

풍요한 가을을 내다보며 – 회양군에서(로동신문 2017.01.18.)

○ 회양군 안의 협동벌에서는 흙깔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포전마다 정보 당 200톤 이상의 갈매흙을 실어내고 있음. 흙깔이 작업은 2017년 1월 중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강돈지구의 갈매흙은 부림소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음.

○ 갈매흙에는 질소, 린을 비롯하여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여러 영양 성분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음. 200톤 정도의 갈매흙은 20톤의 거름과 비슷하며 보통 100㎏의 화학 비료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함.

주타격전방인 농업 부문을 적극 지원 –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1.18.)

○ 평안남도의 모든 도급기관,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해 정초부터 2만 8,000여 톤의 도시 거름과 1만 4,800㎡의 비닐박막, 49만 2,000여 대의 활창대 등 28종 1만 4,500여 점의 중소 농기구와 영농 물자를 화물차들과 트랙터를 비롯한 운수수단에 실어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에서는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음. 대동군, 북창군, 은산군, 회창군, 대흥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많은 거름과 함께 비닐박막, 활창대, 버팀대, 중소 농기구를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덕천시, 평원군, 신양군, 증산군의 도시 거름과 부식토를 싣고 나갔음.

주타격전방인 농업 부문을 적극 지원 -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7.01.18.)

○ 황해북도에서 농촌지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거름 원천을 더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도급기관들에서는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과 은파군 강안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 나갔음. 서흥, 린산, 연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들에서도 일꾼과 근로자들이 거름을 마련하여 협동벌에 실어다주었음.

다수확의 담보는 이렇게 마련되었다 – 문덕군 풍년협동농장 제7작업반의 2016년농사경험을 놓고(로동신문 2017.01.19.)

○ 김정은은 전국농업 부문분조장대회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실시를 강조하였음.

○ 문덕군 풍년협동농장 제7작업반 초급일꾼과 농장원은 포전담당책임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였음. 영농 공정별 작업의 속도와 질에 따라 노력일 평가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고 작업반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였음.

- 해당 작업반에서는 과학농사를 도입하여 다수확을 내고 있음. 문덕군 풍년협동농장 제7작업반은 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를 받아들였고 작업반에서 자체의 힘으로 알비료성형기를 만들어 비료의 효과성을 높였음. 이밖에도 《신양2》호균에 의한 발효 퇴비를 기술적 요구에 맞게 생산·이용한 것 등 선진영농 방법들을 제때에 도입하였음.

농업 부문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 황해남도인민보안국에서(로동신문 2017.01.20.)

○ 최근 황해남도의 도인민보안국과 시, 군인민보안부는 1,650여 톤의 도시 거름과 10여 종, 4,500여 점의 각종 소농기구를 화물차들에 실어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농업용 나노기능성박막 생산에 비낀 애국의 마음 - 남포유화생산분사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1.22.)

○ 남포유화생산분사업소에서는 초림계류체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용 나노기능성박막을 생산하고 있음.

- 이 박막은 농업 부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박막에 비하여 당김세기와 늘음률이 높고 또 나노재료들의 자외선흡수능력이 커서 박막의 노화를 지연시켜 박막 사용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음.

- 이 박막을 모판박막으로 사용하면 빛투과성이 좋고 어린 모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먼적외선복사기능도 있어 보온효과가 좋아 튼튼한 모를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됨. 사업소에서는 박막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음.

주타격전방인 농업 부문에서 장쾌한 승리의 포성을(로동신문 2017.01.23.)

○ 농업 부문은 다수확 품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해곡창지대를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 조건에서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비료를 적게 요구하고 생육기일이 짧으며 가뭄과 비바람,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한데 기초하여 매 영농 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하고 시기별 영농작업을 질적으로 하였음.

- 김정은은 농업 부문에서 흙보산 비료 생산에 힘을 넣으며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하였음. 북한은 현재 집짐승배설물, 도시오물, 풀거름, 개바닥흙을 비롯한 거름 원천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대농업 발전 추세에 맞게 영농 방법을 혁신하고 있음. 황해남도의 여러 농장에서는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 공정별 보장 대책을 세워 알곡 생산을 진행하였고, 일꾼부터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 배치를 잘하고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벌농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그루로 밀과 감자를 심고 뒤그루로 벼와 강냉이를 심고 있음.

-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모내는기계, 토양관리기계, 씨 뿌리기 및 비배 관리기계, 수확 및 탈곡기계, 소형양수기 등을 생산하여 가동률과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안악군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는 농장원의 자각성과 열의를 높이고 모든 영농공정을 빈틈없이 짜서 자체의 힘으로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농장원의 분배몫도 늘려나가고 있음. 농촌경리발전과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촌의 말단단위인 분조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해야 함.

다수확운동에서 선차적으로 중시한 문제 – 대관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1.26.)

○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알곡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음. 대관군 일꾼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새해농사차비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 있음.

- 대관군에서는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분조농사를 중시하고 영농지도를 방법론 있게 진행하였음. 몇 년 전부터 군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음. 이는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를 주로 농장, 작업반을 기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임.

- 분조들은 농경지가 골짜기마다에 분산되어 있고 포전의 지력상태와 해발고, 해비침률 등 농사 조건이 달랐음. 분조장들은 토양조건에 맞는 품종 선택과 종자 처리, 포기수선정 그리고 생육 단계별 비료주기와 논물 관리를 비롯한 재배법과 기술 등이 반영된 농사 대책안을 세웠고 이를 실제 실행하여 분조에 알맞은 영농법을 계발하였음.

농사차비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1.27.)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 배천군, 안악군, 재령군, 신천군, 벽성군, 강령군, 옹진군, 태탄군에서는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지 약 20일 만에 수백 만 톤의 거름 생산과 약 250만 톤의 거름 실어내기, 약 50만 톤의 흙보산 비료 생산, 근 20만 톤의 생물활성퇴비생산, 약 16만 정보의 흙깔이를 하였음. 그리고 냉습지 개량과 활창대, 바람막이바자 확보, 소석회 생산을 비롯하여 농사차비를 진행하고 있음.

과학적인 영농 방법의 도입으로 안아온 결실 – 금강군의 2016년농사 경험을 놓고 (로동신문 2017.01.28.)

○ 금강군에서는 2016년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130% 이상 넘쳐 수행하여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였음. 특히 현리협동농장과 내금강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는 정보 당 10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하였음.

- 현리협동농장에서는 2016년 모든 논벼 포전에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여 정보 당 10톤 이상의 논벼를 생산하였음. 농장 일꾼은 종자피복을 잘하여 새로 받아들인 다수확 품종이 성과가 날 수 있게 하였음. 농장 일꾼은 논벼를 밀식재배하던 지난 시기 농사방법에서 벗어나 소식재배법을 받아들였음.

- 내금강협동농장은 강냉이 대 감자, 콩을 위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을 겹재배하여 2016년 알곡 생산 계획을 140% 이상 넘쳐 수행하였음. 농장 일꾼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겹재배법을 받아들였음. 또한 종지피복을 잘하여 영양 성분에 의해 싹이 빨리 골고루 트고 실하게 자랐음. 이밖에도 하천기슭에 농작물을 심어 알곡 생산을 더 늘렸음.

분조강화에 알곡증산의 예비가 있다 – 룡천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2.06.)

○ 룡천군 일꾼은 분조장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으며 선진영농 방법과 기술이 도입되었음.

- 큰모 재배법을 도입하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영농시기를 앞두고 진행하는 지역별, 농장별, 작업반별기술강습과 보여주기사업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음.

○ 분조장들은 큰모 재배법 도입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 요구를 원리적으로 파악하여 과학농사를 진행하였음.

알곡증산의 첫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 신천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2.11.)

○ 신천군 일꾼은 과학농사 및 다수확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신천군에서는 주체농법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반장, 분조장이 참가하고 있음. 주체농법강습을 과학농사에 실제 농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교환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원에게 과학기술 학습을 진행하여 실제 농사에 적용하고 있음.

우량 품종 배치를 필지별로 따져가며 – 금강군 현리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2.11.)

○ 금강군 현리협동농장 농업 근로자는 우량 품종확보와 배치에 주력하고 있음. 2016년 농장에서는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였고 10톤의 다수확을 낸 작업반수는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음.

- 2017년에는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켜 더 많은 소출이 기대됨. 지력이 높고 지형조건이 유리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알맞은 품종을 심도록 유도하였고 포전에 나가 기술지도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음.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농사작전 – 은천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2.22.)

○ 은천군에서는 다수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다수확을 위해 대동강하류의 간석지 논들에 관개 체계를 새로 세우고 간석지 논들은 염해를 줄였음. 일부 간석지 논들에서 큰모와 영양단지모 가운데 염해에 강한 큰모로 농사를 지었음.

- 비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민산,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을 진행하였음.

많은 온실 남새와 버섯을 생산(조선중앙통신 2017.02.23.)

○ 개성시에서 온실 남새와 버섯생산에 주력하여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개성시 남새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성남새온실에서 년초부터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자체의 힘으로 많은 유기질 비료를 마련하고 남새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공정별 비배관리를 잘하여 시금치, 쑥갓, 배추 등 많은 양의 온실 남새를 상업망들에 보내주었음.

- 판문점, 평화협동농장의 온실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심고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불리한 겨울철에도 남새 생산을 전년 대비 1.3배로 높였음.

- 해선협동농장에서는 온도 보장에 주의하면서 빛관리와 박막, 나래씌우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잘하여 많은 양의 남새들을 키워냈음.

○ 개성버섯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재배실에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고 생육 조건 맞춰 버섯을 키우고 생산된 버슷을 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음.

- 시안의 협동농장 버섯재배장들에서도 기후조건에 맞는 버섯품종을 선택하고 종균배양과 폐열, 태양열에 의한 온습도 보장 등 재배 시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면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과일증산의 토대 축성(로동신문 2017.02.24.)

○ 최근 과수부문에서는 과일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의 일꾼과 연구사들은 극올종으로부터 늦종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과일나무 품종들을 육성·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금까지 160여 품종의 우량 과일나무들을 선발육성하였음. 이 품종들에는 종전의 품종들보다 열매 맺는 기간이 빠르고 추위와 병견딜성이 강하며 단맛과 신맛이 알맞고 한 알의 질량이 수백 그램이나 되는 과일나무 품종들도 있음.

○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들을 널리 퍼뜨리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음.

- 북청군의 과수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과학자들과의 연계하여 우량 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밭과 접가지밭을 조성하고 겨울철에도 나무모 생산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음.
-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연탄군의 과수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능력이 큰 온실들을 건설하고 나무모 생산을 집약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그 결과 종자 파종과 접그루, 접하는 사업을 기후적산온도가 보장될 때에만 진행하던 종전과 달리 온실에서 모를 키워 가뭄과 해충피해,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을 이겨내고 나무모 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5배나 늘릴 수 있게 하였음. 이 기간에 청춘과원이 동서해지구의 곳곳에 일떠섬으로써 키낮은사과나무밭면적은 수천 정보나 늘었음.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기까지 – 흥덕구역 룡신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3.02.)

○ 함흥시 흥덕구역 룡신협동농장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르게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할 때 중요한 것은 과학농사임.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니 농장원의 생산 의욕이 부쩍 높아졌음.

○ 과학농사를 하는데서도 자기 단위, 자기 농장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과 묘술이 있어야 함.

-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농장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나 작전하고 전개해도 옳은 방법론과 묘술에 기초하여 해 나가고 있음. 농장에서는 해마다 농사차비와 씨 뿌리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면밀하게 짜서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할 드높은 열의 – 황해남도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로동신문 2017.03.09.)

○ 황해남도에서는 지난 2월 말까지 508만 8,000여 톤의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었으며 흙깔이와 냉습지 개량, 소석회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수천대의 트랙터를 수리하고 심층시비기, 이동식벼종합탈곡기 등 농기계를 생산하였으며 양수동력설비수리와 물길가시기, 저류지확장과 물길확장공사 등 농사차비가 마지막 단계임.
- 배천군에서는 흙보산 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전투계획을 세우고 보름 동안에 3만여 톤의 니탄을 캤음.

○ 도의 일꾼은 시, 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 안악군, 연안군, 신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 지난 2월 말까지 많은 트랙터를 수리하고 여러 가지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하였음.

- 안악군의 군관개관리소 일꾼과 종업원들은 부족한 많은 양의 철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양수관제작 및 조립작업을 진행하였음.
- 재령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은 최대한 증산하고 350여m의 양수관을 제작하고 210여대의 양수기, 120여대의 전동기, 29대의 변압기 수리를 진행하였음. 배천군, 신천군, 청단군, 신원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는 관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주타격전방에 많은 영농 물자를 – 평안북도에서(로동신문 2017.03.12.)

○ 평안북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농촌에 더 많은 영농 물자와 중소 농기구를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이 참가하는 중소 농기구전시회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들었음.

- 도인민위원회에서는 30여 종, 1만 8,600여 점의 중소 농기구를 마련하였으며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30여 만㎡의 비닐박막과 많은 중소 농기구를 마련하였음. 시, 군들에서는 260여 만㎡의 비닐박막을 준비하였음. 압록강려관에서는 비닐박막과 분무기를 비롯한 많은 중소 농기구, 영농 물자를 마련하였음.

○ 전시회가 끝난 다음 도에서는 50여 종에 15만 4,700여 점의 중소 농기구들과 영농 물자를 화물차들에 실어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주었음.

벼 모판씨 뿌리기가 시작되었다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7.03.18.)

○ 황해남도에서 벼 모판씨 뿌리기가 시작되었음. 벼 모판씨 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시행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2017년 알곡 생산목표를 세운데 맞게 신천군 새길,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에서 벼 모판씨 뿌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음.

- 보여주기사업에서는 씨뿌림량과 질, 씨 뿌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비롯하여 벼 모판씨 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이 강조되었음.

○ 연안군, 배천군, 청단군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은 씨 뿌리기를 계획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음.

-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질 좋은 부식토와 모판자재들을 마련해놓고 씨 뿌리기에 들어갔음.

- 은천군, 은률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농촌에서는 종자 처리를 진행하면서 벼 모판씨 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과학기술로 2017년농사의 돌파구를 열 불같은 열의 – 전국농업 부문 일꾼을 위한 씨뿌리기기술전습회에 참가하고(로동신문 2017.03.18.)

○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에서는 씨 뿌리기기술전습회가 진행되었음.

- 2017년 큰모 도입 면적이 전국적으로 70%에 달했으며 씨뿌림량과 시기 선정 등 논벼 씨뿌리기준비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튼튼한 모를 키워내는 문제가 중요함. 전국적으로 소식재배가 널리 도입되면서 종자소요량이 훨씬 줄었음.

- 기술전습회에서는 종자고르기, 종자해빛말리기, 종자소독, 탈망기를 이용하여 씨앗에 붙어있는 수염이나 이삭가지제거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도판과 실물을 통한 농업성 일꾼의 강의가 진행되었음.

○ 이른큰모를 낸다고 하면서 씨 뿌리기를 무턱대고 일찍 하여 벼모마름병에 걸리게 하는 현상과 씨뿌림량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벼모를 과숙시키거나 헛자란 모를 키워 논벼생육과 소출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하였음.

- 튼튼한 벼모기르기를 최우선시하며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전 면적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특히 부족한 린비료 대신 모판재료로 닭배설물을 평당 1kg씩 무조건 내고 씨 뿌리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밭모기르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얼음갈이, 얼음써레, 논밭갈이를 비롯한 농작물씨 뿌리기준비에 대한 작업도 강조되었음.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 안주시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3.20.)

○ 안주시 일꾼은 영농조직과 지휘를 조직하고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씨 뿌리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음.

- 2017년 시에서는 이른큰모 재배법을 80%의 면적에 받아들일 목표를 세우고 씨 뿌리기를 2016년보다 앞당겨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2017년의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땅이 녹지 않아 씨 뿌리기를 3월 중순에 시작할 수 없었음.
- 그 과정에 논벼긴싹큰모 재배법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음. 온실이나 싹틔우기장에서 싹을 종전보다 더 길게 키워 모판에 뿌리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모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며 씨 뿌리기를 늦추어도 큰모의 모판기일을 보장할 수 있었음.
- 또한 부식토와 닭배설물 등을 활용하여 모판 온도를 높여서 씨앗과 어린 모들이 냉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음.

그림 2 벼랭상모판 씨뿌리기 작업



자료: 로동신문 2017.03.20.

논벼긴싹큰모재배를 위한 종자 처리 시작 - 신천군에서(로동신문 2017.03.20.)

○ 신천군안의 많은 농장에서 논벼긴싹큰모재배를 위한 종자 처리가 시작되었음. 군일꾼은 논벼긴싹큰모 재배법을 도입하여 정보 당 소출을 높인 백석, 새길협동농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종자 처리부터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음.

- 논벼긴싹큰모재배는 온실이나 싹틔우기장에서 벼씨앗을 싹길이가 1~2㎝ 정도 되게 키운 다음 녹화시켜 모판에 뿌려서 모를 기르는 방법임.
- 논벼긴싹큰모가 알곡 증수에서 크게 성과를 냈음.
- 우선 기후적산온도가 낮은 지대에서도 생육기일이 긴 다수확 품종의 논벼를 재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데 있음. 종전보다 모기르는 기간을 10일이나 앞당기면서도 모를 안전하고 크게 길러낼 수 있었음.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벼씨앗을 긴싹녹화하여 4월 초에

씨 뿌리기를 하기 때문에 50~55일 만에 잎수가 7잎 이상, 아지수가 3~4대 되는 튼튼한 모를 기를 수 있다고 함.

○ 또한 모판자재와 종자를 절약하면서도 4월 초에 씨 뿌리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농장에서나 생산 조건과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

- 2016년에 신천군에서는 모기르기에 들던 많은 노력과 영농 물자를 절약하면서도 같은 조건에서 전해에 비해 알곡을 증수하였음. 특히 제12작업반에서는 모든 포전에서 정보 당 10톤 이상 내는 성과가 이룩되었음. 2017년는 군의 논 면적에 받아들이고자 함.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 – 황해남도안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로동신문 2017.03.27.)

○ 황남땅에서 씨 뿌리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신천군 새길,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음. 여기서 평당 씨뿌림량과 씨 뿌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와 벼 모판씨 뿌리기를 제철에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강조되었음.
- 논벼큰모 재배법을 도의 대부분의 논 면적에 받아들이는 조건에 맞게 시, 군들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하였음. 신천군, 은천군에서 논벼긴싹큰모 재배법을 받아들였음.

씨 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 평안북도의 농촌에서는(로동신문 2017.03.30.)

○ 평안북도의 농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봄철씨 뿌리기전투를 시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봄철씨 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3월 28일 현재 도적으로 씨 뿌리기를 87% 진행하였음.

- 도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이른큰모 재배법을 도입했으며 많은 거름과 비닐박막, 중소 농기구, 린정광과 류산 등을 농촌에 지원하였음.
-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에서는 봄철씨 뿌리기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른큰모와 원그루큰모를 비롯한 벼 모판씨 뿌리기, 강냉이영양단지생산과 씨넣기, 감자긴싹모기르기, 밀보리 비배 관리 등 영농법을 보급하였음.
- 신의주시, 피현군, 구장군, 염주군, 곽산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들도 씨 뿌리기를 끝냈음.

씨 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 황해북도의 농촌에서는(로동신문 2017.03.30.)

○ 황해북도 안의 농업 근로자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 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농업 부문 일꾼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지도를 잘하도록 여러 가지 강습과 기술전습을 조직하며 보여주기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연탄군의 일꾼은 모판만들기를 비롯한 씨 뿌리기준비부터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일꾼은 모든 농장에서 현실조건에 맞게 바람막이바자치기를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잤음. 한편 모판용부식토와 덧흙준비를 질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씨 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지도하고 있음.
- 사리원시와 황주군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씨뿌리는기계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곡산군 일꾼과 농장원이 자연흐름식물길을 이용하여 씨 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황주군 철도협동농장도 씨부리기 작업을 하고 있음.

높은 사름률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작전 – 평안남도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7.03.30.)

○ 평안남도안의 산림복구전투장들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나무 심기에서 높은 사름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음.

- 지난 시기 그 효과가 입증된 푸린집적제와 테라코템을 사용하여 철의 불리한 토양 및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심은 나무들의 뿌리활성과 생육을 촉진시켰음.

○ 봄철에 흔히 발생하는 토양부풀음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비닐박막을 씌우고 그우에 흙을 얇게 덮어준 후 밟고 나무 구덩이 속의 토양물기를 충분히 보장해주었음.

- 평안남도 순천시에서도 나무 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임업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서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연구원의 과학자들(로동신문 2017.01.04.)

○ 경제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종자싹그루접방법을 연구·완성하고 연구소의 양묘 포전에서 15만여 그루의 우량 품종 밤나무 모를 대량 생산하여 전국 각지의 밤나무 농장에 보내주었음. 2017년에도 더 많은 우량 품종 밤나무 모를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10만 정보의 밤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

-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빨리 자라는 스트로브소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나무모 생산 방법과 '영양계 채종림' 조성 방법을 확립하였음. 장재도를 푸른 숲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름률이 높은 우량 품종의 둥근참나무와 소금기견딜성아카시아나무, 소금기견딜성포플러나무 등을 연구·도입하였음.

○ 산림과학정보연구소 과학자는 '산림 자원 관리정보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림 자원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산림조성학연구소 과학자들은 테라코템을 사철나무 심기에 도입하여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였음.

산림복구전투승리는 양묘장에서부터 마련된다 – 안악군 산림경영소 일꾼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7.01.07.)

○ 안악군 산림경영소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2016년에 3동의 현대적인 나무모 온실을 건설하였고 2017년부터는 모체 양묘장에서 250여 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삼복철 기간 동안 온실 안의 온도와 습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배풍기를 설치하여 더워진 공기를 뽑아내면서 관수를 해주는 방법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였음.
- 온실을 활용하여 2017년 1월에 나무모를 키우고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나무모를 회전분무식 원형 삽목장과 야외 재배장으로 보냈음. 비워진 온실에서는 단나무모, 밤나무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를 키워서 생산량을 늘렸음.

동발나무생산 성과 계속 확대 – 함경북도림업관리국에서(로동신문 2017.01.13.)

○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온성갱목생산사업소, 경흥갱목생산사업소, 회령갱목생산사업소 등 여러 지역의 일꾼과 생산자들은 동발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 매일 초과수행(조선중앙통신 2017.01.18.)

○ 임업성의 일꾼은 통나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매일 평균 125% 수행하고 있으며 덕천, 덕련, 신양, 북창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짜서 매일 계획보다 수십㎥의 동발나무를 더 생산하고 있음.

- 자강도림업관리국 화평림산사업소와 강계갱목생산사업소에서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진행하여 일별 계획을 1.3배 수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림업관리국산하 장진림산사업소, 검덕, 수동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과 노동자들은 겨울철 조건에 맞게 나무베기를 진행하고 생산 설비에 대한 기술 관리를 진행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함경북도의 연사, 연상림산사업소와 량강도의 유평, 갑산림산사업소의 노동자들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음.

겨울철통나무 생산에서 련일 혁신 - 량강도림업관리국에서(로동신문 2017.01.27.)

○ 량강도림업관리국 일꾼과 노동 계급은 겨울철통나무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연암갱목생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은 탄광들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해 수㎞의 철길을 늘리고 동발나무생산과 수송을 진행하고 있음.
- 동계수, 형제수, 박천작업소들에서 나무베기속도를 높이고 사이나르기를 진행하여 동발나무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음.

도양묘장건설 적극 추진 - 강원도에서(로동신문 2017.01.30.)

○ 원산시 룡천지구에 새로 건설되는 수십정보에 달하는 도양묘장의 나무모 생산 능력은 연간 수천만 그루임.

- 이곳에는 수지경판온실과 야외 재배장, 경기질생산장 등 현대적인 나무모 생산 공정들을 갖춘 생산구역과 관리청사, 합숙, 종업원살림집을 비롯한 교양구역, 생활구역, 산림구역이 갖춰 질 예정임.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 완수 – 임업성아래 10여개 작업소들에서(로동신문 2017.02.2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월 19일까지 10여개 작업소들에서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자강도림업관리국 아래 동신갱목생산사업소 백산, 서양작업소들의 일꾼과 노동자들은 산지통나무 생산을 진행하였음. 관리국 아래 삼락갱목생산사업소의 림정작업소, 희천갱목생산사업소의 관대, 극성작업소 일꾼과 노동자들도 나무를 생산하고 있음.
- 량강도림업관리국아래 유평림산사업소의 천수작업소, 백암갱목생산사업소의 양곡, 합수작업소,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연사림산사업소의 서안, 로평작업소에서도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로동신문 2017.03.02.)

○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임. 산림이 울창해야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고 큰물과 산사태, 가뭄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나라의 토지도 보호할 수 있음.

-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은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임.

○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은 북한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건설되었음.

- 각지 양묘장에서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나무모 생산 능력이 크게 확

장되었음.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가 확립되고 산림조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들이 연구개발되었음.

- 2016년 연탄군과 태천군, 안악군, 강계시의 양묘장에서 합격품 나무모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였음.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양묘장에서는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고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나무모 생산량을 늘려나가야 함.

○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한 도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전개하여야 함.

- 장연군과 운산군, 와우도구역을 비롯하여 2016년 산림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는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심어 사름률을 높였음. 산림부문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사람들에게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똑바로 알려주고 나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심도록 지도를 잘하여야 함. 물주기와 김매기, 잡관목베여주기를 비롯하여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에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함.

그림 3 북한의 나무모 생산 관련 농자재



자료: 로동신문 2017.03.03.

산림복구전투장에 보내줄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 생산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로동신문 2017.03.03.)

○ 식수절을 맞아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일꾼과 종업원들은 수십종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키워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등 첫 나무 심기에 필요한 수백 만그루의 나무모를 평양시 등 전국 각지에 보내주었음.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이 과학기술보급실과 과학연구실을 갖추고 연간 65종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음.

나무모 생산 적극 추진(로동신문 2017.03.08.)

○ 함경북도의 시, 군양묘장의 일꾼과 종업원들이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당의 의도를 받아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에 적극 떨쳐나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온성군, 어랑군 모체 양묘장에서 종자보관과 처리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하면서 거름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진행하여 수많은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스트로브소나무, 포플러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경원군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계획보다 해가림대와 해가림말뚝을 더 생산하여 나무모 생산에 이바지하였음.
- 경성군 양묘장에서는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 확보에 주력하고 경제적 이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실하게 키웠음.
- 화대군 모체 양묘장의 양묘공들은 질 좋은 부식토와 니탄을 비롯한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경쟁적으로 진행하여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면서 물주기와 보식, 비료주기 등 나무모비배 관리에 정성을 기울이었음.
- 김책시, 명천군 양묘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수백 만그루의 튼튼한 나무모들을 키워냈음.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지게 - 평안북도에서(로동신문 2017.03.15.)

○ 평안북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 심기전투에서 성과가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보장하였음.

- 도산림부문의 일꾼은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모든 시, 군들에서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키워내도록 독려하고 있음.
- 도안의 모든 시, 군산림경영소들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창성이깔나무와 세잎소나무, 잣나무 등 10여 종의 많은 나무모를 키워냈음.
- 도에서는 2016년에 400만 개의 단지모를 생산하고 1억 여 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내고 그중에서 2017년에 1만 3,000정보의 들에 옮겨심을 수 있는 5,800만여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봄철나무 심기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음.

나무모 생산을 과학적으로 - 강계시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7.03.17.)

○ 강계시산림경영소의 일꾼과 종업원들이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었음. 강계시에서 최근 수백 정보의 산림면적에 200여 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경영소에서는 튼튼한 나무모 보급을 보장하였음.

- 산림경영소 모체 양묘장에서는 야외 재배장과 관수체계를 갖춘 태양열온실, 나무모저장고를 비롯하여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 보관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갖춰져 있음.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참대버드나무, 들메나무를 비롯한 10여 종의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음.
- 강계농림대학에서 연구·완성한 뿌리내림촉진제를 도입하여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92.5% 이상 보장하고 있음.

또다시 높아진 나무모증산실적 - 안주시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7.03.23.)

○ 안주시 안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시안의 산림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무모 생산실적이 높아지고 있음.

- 온실을 개건하여 낮에는 태양열에너지를, 저녁에는 집짐승 우리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온실 안의 온도를 보장하였음. 또한 숲사이나무모밭들의 면적도 지난 시기보다 1.2배 이상 늘렸음.

나무 심기성과 계속 확대 –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로동신문 2017.03.27.)

○ 2017년의 나무 심기 성과가 확대되고 있음.

- 린산군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숲사이나무모기르기 방법을 널리 도입하여 많은 양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음.
- 산림조성사업에서 앞장서고있는 태천군에서는 책임일꾼부터가 자기 집 텃밭을 나무모밭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불씨가 되여 군급기관은 물론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나무모를 키우고있음. 이렇게 생산한 많은 양의 나무모들이 해당 산지들에 심어지고 있음.
- 장연군에서는 모든 단위들에 산림조성계획을 명백히 주고 나무 심기를 질적으로 한 결과 높은 사름률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 연탄군에서는 해당 부문 일꾼이 현지에 나가 나무 심기의 전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 순안구역에서는 모든 단위가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문덕군 일꾼과 근로자들도 구덩이마다 부식토와 흙을 깔고 나무를 심은 다음 물주기도 따라세우며 사름률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수종배치를 바로 하고 나무 심기에서의 기술적 요구들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음.

중시하고 앞세운 임지정리사업 – 평산군 청수리산이용반에서(로동신문 2017.03.30.)

○ 평산군 청수리는 잣나무, 이깔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음. 해당 지역에서는 임지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임지들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심을 자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일정한 구간에 있는 잡관목과 풀뿌리들을 뽑아버리고 비탈면을 수평이 되게 정리한 다음에 나무를 심고 있음.
- 임지를 정리하고 나무 심기를 진행하면 구덩이 파는 속도가 빨라지고 나무모 뿌리들이 말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 또한 비탈면을 수평으로 정리해놓고 나무를 심으니 빗물에 의한 토지 유실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빗물을 이용하여 충분한 토양물기를 보장해줄 수 있음.

◆ 축산업

축산을 과학화해야 증산의 길이 열린다 – 신의주닭공장 일꾼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7.01.04.)

○ 신의주닭공장은 2016년 생산 원가를 30% 이상 줄이면서 축산물 생산 계획 중 닭알 140% 이상, 고기는 110% 이상 넘쳐 수행하였음. 특히 주요 단백질 먹이인 콩깻묵은 50%, 첨가제는 30% 밖에 쓰지 않으면서도 축산물 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2016년에는 콩깻묵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소화 흡수율을 높여 단백질 먹이 문제를 해결하였음. 복합미생물효소제를 보건성 의학연구원 미생물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하여 이용하였음. 그 결과 해마다 수백 톤의 콩깻묵을 쓰지 않고도 축산물 증산 성과를 계속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생산 원가가 가장 많이 드는 첨가제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 함께 희토류 원소로 항균력을 높여 가금의 성장과 산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효과성을 높였음. 축산물 생산에 들던 첨가제를 60% 이상 절약하게 되었음.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여 – 정평군 호중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1.09.)

○ 정평군 호중협동농장에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실정에 맞는 집짐승 기르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몇 년동안 축산물 생산을 늘렸음.

- 일꾼은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을 잘 꾸리고 실리 있게 운영하도록 하도록 노력하였음.

농장의 실정에 맞게 돼지를 방목하는 방법으로 많은 알곡 먹이를 절약하면서 증체율을 높였음. 4월 말부터 6월 말 사이에 돼지방목을 진행하였음.

- 일꾼은 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집짐승을 기르는 데도 노력하였음. 풀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농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거위도 많이 길렀음. 그 결과, 농장의 축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었음.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튼튼한 생산토대 축성 – 각지의 축산 기지들에서(로동신문 2017.01.28.)

○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과학기술로 해결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평양가금생산국아래 공장과 광포오리공장, 흥주닭공장에서는 과학적인 종금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고기와 알 생산에 이바지하였음.
- 대동강돼지공장에서는 우량 품종육종체계를 세우고 새끼돼지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2016년 고기 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얻었음. 먹이 소비량을 이전보다 낮춰 종자 문제를 해결하였음.

○ 닭공장에서는 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 신의주닭공장 일꾼과 기술자들은 희토류 원소를 활용하여 항균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심화하였음. 그 결과 축산물 생산에 들던 첨가제를 60% 이상 절약하게 되었음.
- 흥주닭공장의 일꾼과 기술자들은 요소흡착단백질 먹이를 생산 도입하고 류황-금강약돌활성첨가제생산에 성공하여 단백질 먹이를 대용하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되었음.

○ 각지 돼지공장에서는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사업이 진행되었음.

- 군민룡천돼지공장에서는 은풍첨가제와 희토류 원소를 같은 비율로 섞어 이용하여 돼지의 증체율을 4% 이상 늘릴 수 있게 되었음.
- 강계돼지공장은 낟알짚, 부식토, 감탕 등을 배합먹이와 해당한 비율로 섞은 다음 미생물로 처리하여 소화흡수율을 높였음.
- 대동강돼지공장에서는 축산물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먹이단위를 옳게 정하여 사양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끌어올렸음.
- 공장의 기술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과 연계하여 경영업무프로그램과 질병진단프로그램, 돼지종축관리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음.

자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 여러 협동농장들의 축산물 생산 성과를 놓고 (로동신문 2017.01.28.)

○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집짐승 우리부터 생리적 특성에 맞게 지어 공동축산을 발전시켰음.

○ 농장에서는 겨울철의 집짐승 사양관리에서 중요한 문제인 우리 온도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온실식집짐승 우리를 만들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온도가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음. 또한 농장에서는 돼지와 오리, 닭, 토끼를 기르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거름으로 농사에 활용하였음.

- 순천시 련포남새전문협동농장 제5작업반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단층건물을 짓고 지하우리를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으로 돼지를 기르게 하였음.
- 강남군 영진협동농장에서는 알곡 먹이와 함께 단백풀재배장과 지렁이서식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먹이를 낟알짚, 남새를 분쇄한 것과 배합하여 알곡소비량을 1/3로 줄였음. 또한 큰 단백풀을 비롯한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먹이풀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낟알짚을 분쇄한 것을 미생물로 처리하여 먹이로 이용하였음.
- 원산시 현동남새전문협동농장은 한겨울에도 태양열온실에서 석탄 대신 토착미생물로 처리한 볏겨에서 나는 열로 큰단백풀을 재배하여 먹이 문제를 해결하였음.

많은 집짐승을 길러 윤택해지는 생활(로동신문 2017.01.28.)

○ 김정은은 공동축산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농촌 세대들에서 개인축산을 장려하였음.

- 많은 가정들에서 당의 요구대로 풀과 고기를 바꾸는 원칙에서 먹이풀 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고 계절별로 남새부산물을 활용하여 돼지와 닭, 오리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기르고 있음. 집짐승을 기른 것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제 손으로 생산한 축산물을 유통시켜 먹이 문제를 해결하였음.

축산에 주력하여(로동신문 2017.03.01.)

○ 삼지연군 보서농장 제6작업반에서 축산에 주력하여 해마다 많은 집짐승을 길러내고 있음.

- 초급일꾼은 작업반원에거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작업반에서는 종합축사를 짓고 집짐승 사양관리를 진행하여 돼지와 염소, 닭을 비롯한 집짐승을 길렀음. 우량 품종의 종축돼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음.
- 대용 먹이를 적극 이용하여 알곡 먹이비중을 낮추면서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데 주력하였음.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고 돼지와 닭,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길러 농장원의 살림에 큰 보태고 있음. 또한 해마다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어 지력을 높이고 있음.

◆ 식품업

국산화를 중핵으로 틀어쥐고 – 식료공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로동신문 2017.01.08.)

○ 평양곡산공장 일꾼과 노동 계급은 공장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정에 북한이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 설비를 마련하였음.

-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일꾼과 종업원들은 2016년 능력이 큰 즉석 국수 생산 공정을 꾸리기 위해 설비를 자체로 제작하거나 개조하였으며 즉석 국수 생산 공정의 국산화 비중이 80% 이상으로 되었음.
-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도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도루메기가공공정과 띄운콩생산 공정을 만들었음. 룡악산샘물공장, 자체의 힘과 기술로 크림겹단설기 생산 공정을 새로 일떠세운 선흥식료공장 등 모든 식료공장에서도 성과가 있었음.

원료 기지를 잘 꾸려놓고 – 곡산식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7.01.09.)

○ 곡산식료공장에서 원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생산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꾼과 종업원들은 쓸모없이 버림받던 땅을 개간하면서 포전을 규모 있게 정리하였음. 그리고 수십 마리의 돼지와 200여 마리의 염소,100여 마리의 닭과 거위를 기를 수 있는 축산 기지를 훌륭하게 만들었음.
-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 알이 생산되고 있음. 축산에 품을 들인 것만큼 해마다 질 좋은 거름이 많이 생산되어 원료 기지 농사에 도움이 되고 있음.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류경김치공장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2017.01.21.)

○ 류경김치공장 준공식이 2017년 1월 20일에 진행되었음.

감자가루공장건설 힘 있게 추진(로동신문 2017.03.01.)

○ 김정은은 2016년 11월 삼지연군 현지지도 중 량강도에서 인민 생활 문제를 풀려면 결정적으로 감자가공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 량강도당위원회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력, 자재, 물자 보장과 작업 및 생활 조건을 해결해 주고 있음. 량강도려단, 유도림업관리국중대, 혜산제지공장소대는 감자가루공장건설을 위한 하부구조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인민 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1.4분기, 2월계획 완수 – 맹산군식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7.03.04.)

○ 맹산군식료공장에서 된장, 간장, 콩기름,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 생산 계획을 초과하여 수행하였고 공업총생산액계획을 2월 25일까지 105%로 완수하였음.

- 군안의 탁아소, 유치원들과 소학교들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매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질 좋은 밀가루가공품을 더 많이(로동신문 2017.03.16.)

○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일꾼과 종업원들이 2017년 1월과 2월 인민 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데 이어 3월에도 줄기찬 연속공격전을 진행하여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물엿과 옥당으로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과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식료품의 질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빵, 꽈배기를 비롯한 가공품의 종류를 다종화, 다양화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진행하여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있음.

◆ 기타 작물

그림 4 해주버섯공장 및 버섯 재배



자료: 로동신문 2017.01.09.

누에고치생산에서 최고실적을 낸 비결 –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7.01.19.)

○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2016년 누에고치생산 계획을 116% 수행하였음.

- 농장에서는 뽕나무비배 관리를 과학화하여 뽕잎 생산을 늘렸음. 이른봄뽕나무가지자르기를 진행하였고 뽕나무밑둥긁어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자체적으로 제작한 소농기구를 활용하여 깊은층비료주기를 하고 뽕나무비배 관리를 하였음.

오존에 의한 새로운 버섯기질멸균방법 개발 – 조선인민군 김영덕소속부대에서(로동신문 2017.02.24.)

○ 조선인민군 김영덕소속부대의 과학자들은 실리가 큰 새로운 버섯기질멸균방법을 개발·도입하였음.

- 지금까지 많이 적용된 상압멸균법과 발효법, 석회처리법과 같은 버섯기질멸균방법들은 연료 소비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멸균효과가 높지 못했음. 예를 들어, 상압멸균법은 버섯기질을 100℃에서 10시간 동안 가열해야 살균할 수 있으며, 예열 및 식힘 과정을 합치면 멸균하는데 평균 18~20시간이 소요됨.

○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상압멸균법에 비하여 멸균시간을 8~10시간 단축하면서 내열성수지병의 오염률은 종전의 5%에서 1.5% 이하로 낮출 수 있음. 새로 개발된 방법은 종전에 비해 버섯생산주기는 6~7일 앞당기고 버섯생산량은 1.5배나 늘었다고 함.

누에치기운동을 힘 있게 벌려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자(조선중앙통신 2017.03.24.)

○ 2017년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한 녀맹일꾼과 녀맹원들의 궐기모임이 23일 강서구역 청산리에서 진행되었음.

3 농업기반 및 농자재

◆ 토지 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20만산대발파 성공적으로 진행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1.08.)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과 노동 계급이 홍건도간석지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2017년 1월 6일 신미도 1지구에서는 20만산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 홍건도간석지 2단계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신미도 2지구에서도 발파산 작업이 진행되었음.
- 장송, 다사, 보산, 석화간석지건설분사업소에서는 2017년 1월 6일 5만산발파를 작업을 진행하였고 매일 수십m의 제방을 쌓고 있음.

철령아래 고산땅에 발전소가 건설된다(로동신문 2017.01.10.)

○ 618건설돌격대는 고산군으로 흐르는 하천에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 이 발전소가 건설되면 고산과수종합농장의 관리 운영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2.03.)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과 건설자들은 20만산대발파와 5만산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지구와 2지구에서 첫 한달 동안에 근 2,000m의 제방 성토 공사를 진행하고 2017년 1월 공사계획을 수행하였음.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 힘 있게 추진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2.26.)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과 간석지 건설자들은 2017년 정초에 20만산대발파와 5만산대발파를 성공적으로 보장한 기세로 2,400여 m의 제방 성토 공사를 진행하였음.

◆ 물길 공사, 저수지, 물 보장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적극 추진(로동신문 2017.01.16.)

○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에 동원된 일꾼과 돌격대원들은 며칠 동안에 1만 3,000여㎥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고 저수지 언제의 기초 굴착과 물길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물길 공사에는 물길기계화사업소, 남포시려단, 자강도려단, 룡산려단, 평안남도려단이 참여하고 있음.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 - 온성군에서(로동신문 2017.02.24.)

○ 온성군에서 수리화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군일꾼과 농업 근로자들은 강물을 논에 끌어들이기 위한 취입보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여 1,200여정보의 논에 물을 원만히 대었음.

◆ 거름, 비료, 농약

효능 높은 복합 비료 생산에 큰 힘을 - 안변군에서(로동신문 2017.01.07.)

○ 안변군 일꾼은 복합 비료 생산에서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변군에서는 아미노산 미량 원소 복합 비료의 생산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복합비료에는 붕소, 몰리브덴, 망간 등의 미량 원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어 농작물이 생육 전기간 튼튼히 자라게 하고 병견딜성도 높아지게 해주었음.

- 또한 농작물의 뿌리 발육을 왕성하게 하여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도록 하였음. 또한 이삭의 여문률과 천알 무게가 늘어나게 하였음.

○ 군의 책임일꾼은 새 기술보급소 일꾼과 기술자들을 격려하여 년초부터 아미노산 미량 원소복합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음.

비료 생산 계획 매일 넘쳐 수행(조선중앙통신 2017.01.15.)

○ 흥남에서는 비료 생산을 매일 계획의 102%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정상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료, 자재 보장 대책을 세웠음.

- 물전해직장, 1, 2합성직장, 1,2질소직장, 질안직장에서는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진행하고 따라배우기 운동을 진행하였음. 급수, 운수, 자동화부문과 증기직장, 변배전직장, 화학기계분공장, 보수분사업소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보름 동안 2만여 톤의 니탄 생산, 포전에 집중 수송(조선중앙통신 2017.02.20.)

○ 백암군에서 감자밭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음. 량강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2월에 들어와 보름 동안에 2만여 톤의 니탄을 생산하여 백암군 덕포지구의 감자밭들에 집중 수송하였음.

그림 5 보통강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의 벼모판종합제



자료: 로동신문 2017.02.26.

벼모판종합영양제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 - 보통강유기질 복합 비료공장에서 (로동신문 2017.02.26.)

○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씨 뿌리기에 필요한 질 좋은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벼모판종합영양제는 벼모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원소들과 성장촉진제, 산도조절제를 혼합하여 만든 가루상태의 벼 모판전용비료임.

○ 공장에서는 3월 말까지 전국의 농촌들에 6,000여 톤의 벼모판종합영양제를 생산 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 150여 톤을 생산하고 있음.

새로운 식물성농약 국산화 실현 –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로동신문 2017.03.05.)

○ 최근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 새로운 식물성농약을 국산화하였음.

- 이번에 니코틴-광물성기름유제를 개발하였음. 농업성 일꾼의 말에 의하면 부산물만 이용해도 원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쓸모없이 버리던 부산물이 농약다량생산의 원천이 되었음. 10여 종의 해충에 대한 적용시험을 통해 농약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기지 건설, 생산 시작 – 강남군에서(로동신문 2017.03.07.)

○ 강남군에서 능력이 큰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기지를 새로 건설하였음. 일꾼과 근로자들은 수천㎡의 면적에 분쇄기, 이적기, 혼합기 등 모든 생산 조건이 갖춰진 현대적인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기지를 만들고 생산을 시작하였음.

○ 원료원천이 풍부한 유리한 조건에 맞게 조성한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 능력을 배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료운반과 건조, 이적, 분쇄, 선별, 혼합, 성형, 출하작업이 하나로 결합된 생산 공정을 만들었음.

그림 6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7.03.18.

대용붕소비료 생산토대를 갖추어놓고 -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7.03.22.)

○ 황해북도에서는 홀동석확보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홀동석은 사리원유기질 복합 비료공장에서 사용되어 대용붕소비료로 만들어져 알곡 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됨.

- 2016년 사리원유기질 복합 비료공장에서 10여 톤의 대용붕소비료를 생산하여 농작물의 생육후반기에 이용해보았으며 결과가 아주 좋았음. 도적으로 이전보다 정보 당 논벼수확고가 평균 7%, 최고 20%나 올랐음. 또한 강냉이수확고도 높아졌음.

- 2017년 논벼 생산량을 2016년의 12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음.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꾼은 필요한 대용붕소비료를 자체로 생산·이용할 통이 큰 계획밑에 홀동석, 농류산확보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용 비료 생산에서 혁신 – 각지 농촌에서는(로동신문 2017.03.26.)

○ 각지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대용 비료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염주군에서는 군안의 여러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린회토를 이용하여 수확고를 높인 경험을 살려 2016년보다 린회토를 수만 톤 더 많은 포전에 보냈고, 아미노산 미량 원소복합비료, 카리티탄비료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룡천, 동림, 곽산군, 정주시 등 여러 시, 군들에서도 아미노산 미량 원소복합 비료와 후민산비료 생산 계획이 수행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는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비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안의 여러 시, 군들에 매장되어 있는 초무연탄, 풍화탄, 질석, 린회토, 고회석, 규조토, 비석 등 자원들을 적극 이용하여 각종 대용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황해북도는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과 연계하여 도식물방역소에 《신양2》호균생산기지를 꾸려놓고 100톤 이상의 종균을 생산 보장함으로써 도안의 논벼, 강냉이, 콩포전에 정보 당 1.5톤 이상의 발효 퇴비를 낼 수 있게 하였음.

- 명천군에서는 갈탄버럭, 규조토, 린회토 등 유기광물질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알비료를 밑비료와 잎덧비료로 이용하여 강냉이수확고를 늘렸으며, 유기광물질알비료 원료 확보 및 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효능 높은 강냉이종자피복제생산 결속 - 평원농약공장에서(로동신문 2017.03.26.)

○ 평원농약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10여 톤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22일 현재 20만 정보분에 해당한 지하해충구제용 현부제형강냉이종자피복제 생산 과제를 끝냈음.

- 강냉이종자피복제는 살충제, 살균제, 성장촉진제를 비롯하여 지하해충피해를 막고 종자의 싹트기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 있어 효능이 매우 높음. 이 종자피복제를 이용하면 싹트는률을 99% 이상으로 높아지고 정보 당 500㎏이상의 알곡을 증수할 수 있다고 전해짐.

벼모판종합영양제의 질을 높여 - 단천시에서(로동신문 2017.03.27.)

○ 단천시안의 협동농장에서 벼모판종합영양제의 질을 높여 벼모가 린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벼모판종합영양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느 한 공장과의 연계하여 과석을 분해 작업을 진행하였음. 류산아연과 류산마그네시움을 벼모판종합영양제 생산에 이용하여 질을 높이고 벼모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하였음.

기술개발 역량강화에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꾼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7.03.27.)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꾼은 자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현대화와 생산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 2016년에 탄산가스정밀탈류제, 암모니아합성촉매를 비롯한 여러 촉매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촉매제조용설비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음.

○ 촉매연구소에서는 탄산가스정밀탈류제와 같은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촉매들을 국산화하였음. 니트로가스랭축탑기술개건과 산소분리기공기정화탑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암모니아합성탑증발기를 새로운 공법으로 개조하여 능력을 높였음.

◆ 농기계

정평군농기계작업소 일꾼과 종업원들(로동신문 2017.01.15.)

○ 정평군농기계작업소 일꾼과 종업원들이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판만드는기계 제작 작업이 마감 단계에 있음.

○ 두둑갈이기계는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서 1등으로 평가받았으며, 해당 기계는 전갈이와 써레치기, 두둑짓기 등 3가지 공정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음.

- 최근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물절약형농법 가운데 하나인 두둑재배법을 광범하게 도입하고 있음. 두둑짓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 28hp《천리마》호 트랙터를 개조하였고 능률 높은 두둑갈이기계를 만들었음.

생산활성화의 지름길은 자력자강 -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1.21.)

○ 황주군농기계작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트랙터 수리와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 등 우리 식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고 있음.

- 농기계제작과 트랙터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농기계작업소에서 용선로를 정상 가공하기 위해 알탄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쇠를 용해시키기 위해 진흙 앙금을 추가하여 발열량을 늘렸고 용선로를 열풍식으로 개조하였음.

신천군농기계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1.21.)

○ 신천군농기계작업소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2017년에 농기계부속품생산과 함께 1,600여대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작업소의 일꾼은 70일전투와 200일전투 기간 동안 능률 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 깊은층비료주는기계들을 제작하여 작업반, 분조마다 보내줄 목표를 세웠음. 2016년에는 60여 종에 수만점의 부속품을 생산하여 연간계획을 300% 수행하였음.

1월생산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1.27.)

○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증산돌격전을 진행하여 1월 인민 경제계획을 끝내고 새로운 형태의 농기계와 의료기구 부분품을 비롯한 대상설비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새 농기계 개발 적극 추진(로동신문 2017.02.24.)

○ 최근 농기계 부문에서는 종합수확기, 벼종합수확기, 강냉이종합수확기, 사료수확기를 비롯하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이며 다용도화된 새로운 농기계들에 대한 설계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제작을 위한 준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설계전투에 농업성 농기계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과 계응상농업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 남포농업대학의 과학자, 교원, 연구사들이 참여하였음.

- 지난 시기 제작된 수십종의 농기계들은 주로 트랙터 연결식이었음.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농기계들은 거의 모두 자행식 농기계들이며 다용도화되고 다기능화되었음.

농기계수리정비 완료, 출동식 진행 - 만경대구역에서(로동신문 2017.03.04.)

○ 3월 3일 만경대구역에서는 농기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끝내고 출동식을 진행하였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음.

- 큰모씨뿌리는기계, 동력제초기, 심층시비기 등 5종에 50여 점의 농기계들이 새로 창안·제

작되고 종합토양갈이기계, 들춰갈이보습, 두둑짓는기계 등 많은 설비도 실정에 맞게 개조되었음.

그림 7 북한 황주군 흑교협동농장의 트랙터



자료: 로동신문 2017.03.18.

4 기타 동향

13개 대상이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로동신문 2017.01.08.)

○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13개 대상을 국가 및 지방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하였음.

- 이번에 등록된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에는 견우직녀 전설, 을지문덕 전설, 고려 종이 제조 기술, 누에치기, 수정과, 자라 요리, 약밥, 신선로, 함경도 단고기장, 함흥 농마 국수가 있음.

세포등판에 결사관철의 정신이 나래친다 – 922건설돌격대에서 20여일동안에 6만여 톤의 토양개량제 생산, 운반전투 활발(로동신문 2017.01.25.)

○ 922건설돌격대 일꾼과 돌격대원은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여 세포지구에 운반하였음.

1월 인민 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식료일용공업성과 잠업비단공업국에서(로동신문 2017.02.04.)

○ 식료일용공업부문 일꾼과 노동 계급이 1월 인민 경제계획을 초과 수행하였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성(省) 단위 기준 1월 공업총생산액은 140%로 수행되고 모든 지표별 계획이 초과 완수되었음. 이것은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공업총생산액은 2배로, 지표별 계획은 1.2배로 성장하였음.

- 평양곡산공장에서는 당과류 생산과 옥당, 물엿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였음.
-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주문 계약에 기초하여 판매하였음.
- 평양기초식품공장, 대동강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해 노력하였음. 평양일용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강계연필공장,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 일꾼과 생산자들도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잠업비단공업국의 일꾼과 각지 생산자들이 1월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5.6% 수행하였음. 이 기간 비단실, 일반천, 담요를 비롯한 중요 지표별 생산 계획이 각각 113.8%, 109%, 100%로 수행되었음.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함흥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 강서제사공장, 녕변견직공장, 박천견직공장, 안주견직공장에서 지표별 생산이 달성되고 있음.

효율 높은 생물연료 개발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에서(로동신문 2017.02.12.)

○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과학자들이 효율 높은 생물디젤유를 개발하였음. 생물디젤유는 현존 기관을 개조하지 않아도 버스와 트랙터, 화물차 등 디젤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윤전기계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음.

2017년의 첫 소금을 생산 - 원산제염소에서(로동신문 2017.02.20.)

○ 원산제염소의 일꾼과 노동자들은 2월에 첫 소금꽃을 만들었음.

- 안변군과 고성군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는 제염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자체의 힘으로 생산 조건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음. 통천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소금생산작업반들에서도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자
(로동신문 2017.02.22.)

○ 삼지연군 건설은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음.

- 삼지연군을 산간도시의 본보기군·표준군으로, 북한에서 지방공업이 제일 발전된 잘사는 곳으로, 감자 농사의 본보기 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앞선 전형단위로 변모시키려고 함.
-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 백두산종합박물관, 감자가루생산공장, 부사마감건재중간생산기지, 하부구조건설을 2017년 중에 반드시 완공해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은 삼지연군꾸리기에 강력한 역량을 조직동원해야 함. 삼지연군꾸리기는 3~4년 안에 끝내야 하는 공사임.

1.4분기 인민 경제계획 앞당겨 수행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로동신문 2017.02.24.)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꾼과 노동 계급은 2월 15일까지 1.4분기 비단실생산 계획을 완수하고 수천 채에 달하는 비단 이불을 생산하였음.

인구일제조사가 진행된다 – 중앙통계국 일꾼과 나눈 이야기(로동신문 2017.03.11.)

○ 인구조사란 국가가 자기 영토 안의 주민들과 세대들을 숫자적으로 장악하는 통계조사를 말함.

- 인구조사에는 인구동시조사와 인구일제조사가 있는데 해당 강습을 받은 전문조사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담화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사를 인구일제조사라고 함. 실례로 학생들에게 안겨줄 교복생산 계획, 주민세대들에 대한 땔감과 먹는물, 전기보장계획, 상품 및 식료품공급계획 등은 모두 인구일제조사에서 파악된 통계숫자들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됨.

○ 북한에서 인구일제조사는 1993년과 2008년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조사가 진행된 지 10년이 되는 다음해에 세 번째로 인구일제조사를 진행하게 됨.

- 각급 인민위원회,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조사에 빠지는 주민들이 한명도 없도록 대책들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함.
- 2017년 10월 1일 인구일제조사를 위한 전국적인 시범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조건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그 준비 사업에 주력하여 8월까지 완료하여야 함.

강원도정신의 불길높이 모든 시, 군들을 흥하고 번성하는 자급자족지역으로 전변시키자(조선중앙통신 2017.03.13.)

○ 강원도정신창조자 군중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음.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음.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2017년의 전투 목표를 반드시 앞당겨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음.

- 인민 생활 문제를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고 언급하였음.
-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 자체의 힘으로 도시와 마을들에 살림집과 유치원, 탁아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중소형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며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이용하자고 말하였음.
- 농업근로자들은 현실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량 종자와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여 알곡 정보 당수확고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새 기술연구와 도입에 주력하여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농기계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 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농기계를 보급하자고 언급하였음.
-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2017년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축산과 과일, 버섯, 남새, 양어기지들을 활성화하고 수산부문을 활성화하자고 언급하였음.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이 나왔다(로동신문 2017.03.27.)

○ 김일성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이 새로 설립되었음. 국토환경보호사업은 물론 산림부문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인재육성기지가 창설되었음.

- 국토환경보호성과 임업성의 일꾼도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기구들을 보장해주었음. 새 학년도부터 공부하게 될 박사원생들과 학생들이 선발된 상태임.

세포지구 발전소건설 힘 있게 추진 -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7.03.28.)

○ 강원도의 세포지구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 수력발전소건설 과정에는 고미탄천을 가로막는 수백 만㎥의 사석언제를 쌓고 비상배수와 수위조절, 취수를 위한 여러 개의 물길굴을 뚫는 과정이 포함됨.

○ 태양절까지 3,000여 ㎥의 콩크리트피복과제를 수행했으며, 물길굴 공사를 앞당겨 완공하고 첫 개통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농업 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로동신문 2017.03.28.)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016년도 농업 생산 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다음의 단위들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하였음.

○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봉수남새전문농장,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락랑구역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영진협동농장, 대성구역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성천군 장림협동농장, 삼덕축산전문협동농장, 순천시 동암남새전문협동농장, 순천목장,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토성협동농장, 신의주닭공장, 송한과수농장, 신의주고치생산사업소,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동신협동농장, 곽산군 로하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평북돼지공장,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남압협동농장, 강계돼지공장, 흥주닭공장, 강계오리공장, 위원군 고보협동농장, 시중군 흥판협동농장, 초산군 구룡협동농장, 송묘협동농장, 안찬협동농장, 충상협동농장, 자성군 운봉협동농장, 화평군 리평협동농장, 중강군 읍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덕성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연안군 읍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 서흥군 가창협동농장, 연탄군 읍협동농장, 수봉협동농장,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원산시 현동남새전문협동농장, 룡천협동농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함흥시 함흥남새전문농장, 사포남새농장, 동흥산구역 구흥협동농장, 류정협동농장, 회상구역 하덕협동농장, 정평군 신상협동농장, 률성협동농장, 광포오리공장, 영광군 흥봉협동농장, 금야군 구룡협동농장, 신흥군 읍남새전문협동농장, 경흥협동농장, 창서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덕성군 수서협동농장, 직동협동농장, 덕성사과농장, 북청군 지만과수농장, 라하과수농장, 청해농장, 동도농장, 덕음농장, 보천과수농장, 예승농장, 룡전과수농장,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협동농장, 길주군 봉암협동농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천리마구역 고창협동농장, 대보협동농장, 강선협동농장, 룡강군 옥도목화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124개의 협동농장(농목장).